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 
배포일자		2022년 5월 5일(목) 총 4매		
담당 부서 해양항공국	담당자 • 해상교통팀장 김영선 ☎440-4981 • 담당자 이재민 ☎440-4982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마스크 벗고 산뜻하게, 5월엔 인천 섬 나들이**  
 -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... 인천시민 80%, 타 시·도민 50% 할인 -  
 - 차 없이도 즐거운 당일 섬 여행지 추천 ... 대이작도·덕적도·신시모도 -

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인천시가 가족과 함께 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당일 섬 여행지를 추천했다.

인천시가 추천한 여행지는 웅진군 소재의 섬으로 일평균 3편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해 접근이 용이하며, 총 면적이 20km<sup>2</sup>를 넘지 않는 작은 섬으로 차 없이 걸거나 자전거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여행자의 여객선 이용요금 부담도 확 줄었다.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은 물론 타 시·도민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천시민은 80%, 타 시·도민은 50% 할인된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여러 섬이 있어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가벼운 나

들이를 하기에 안성맞춤”이라면서 “인천시의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이 모처럼 섬 여행으로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이미자의 노래 <섬마을 선생님>을 영화화한 <섬마을 선생님>의 배경이 됐던 대이작도, 길이 2km, 폭 500m의 황금빛 모래와 백사장이 있는 해수욕장과 백년이상 된 1천여그루의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덕적도,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삼 형제 섬 신시모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섬이 지척이니 5월 섬 나들이를 계획해보자.

### ① 휴식하는 섬, 대이작도

대이작도는 구경하는 섬이 아니다.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휴식하다 돌아가는 섬이다. 면적 2.57km<sup>2</sup>, 해안선 길이 18km인 대이작도는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에 딱 좋다. 선착장에서 섬 동쪽 끝 계남마을까지 4km도 안 되니 두 발로 걸어서도 예닐곱 시간이면 섬 전역을 훑어볼 수 있다. 자월도, 승봉도, 소이작도와 함께 웅진군 자월면에 딸린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이작도까지 평일 3편, 주말 4편의 여객선이 운항하며, 쾌속선으로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다.

### ② 산꾼들 사이에 소문난 섬 산행 명소, 덕적도

덕적도는 8개 유인도와 34개 무인도로 이뤄진 덕적군도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전체 넓이는 20.8km<sup>2</sup>이며 해안선 길이 37.6km에 이른다. 평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섬으로 산꾼들 사이에서는 섬 산행의 명소로

소문나 있지만 일주도로가 잘 닦여 있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기도 수월하다. 연안부두에서 덕적도까지는 하루 3편의 선박이 운항하며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부정기 유람선이 운항하기도 한다.

### ③ 삼도삼색 매력 신시모도,

**4시간 자전거 코스로 완벽 ...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 가능**

신시모도는 신도와 시도, 모도를 일컫는 말로 일명 삼형제 섬으로도 불린다. 하나의 섬이 된 신시모도는 다 합쳐도 동서 6.3km, 면적 10.19km<sup>2</sup>의 작은 섬으로 하루 시간을 내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맞춘다.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겨우 2km 떨어져 있는 신도는 배를 타고 10분 만에 닿을 수 있으며 시도와 모도는 다리로 연결돼 있다. 세 섬을 일주해도 25km 남짓으로 휴식을 포함해 4시간 정도면 충분하며, 작은 고개가 몇 군데 있지만 초보자나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다. 삼목선착장에서 신도까지는 하루 20편의 여객선이 운항한다.

이밖에도 여객선 할인 혜택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섬으로는 용진군의 백령도와 연평도, 강화군의 불음도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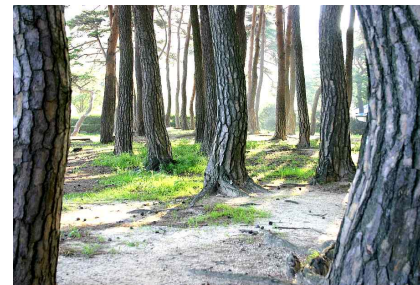
백령도에서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를, 불음도에는 천연기념물 304호인 1230년생의 남편 은행나무를 만나 볼 수 있다. 강화도 불음도는 선수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.



< ▲ 대이작도 풀등섬 >



< ▲ 덕적도 >



< ▲ 덕적도 적송 소나무 숲 >



< ▲ 신시모도 >